

우리의 역사 (동시성적 섭리역사)

모든 존재 세계는 하루아침에 순간 만들어지지 않는다. 탄생하고 성장하여 완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구의 역사도 수십 억년이다. 창세기에서 7일 만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씀은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수억 년이 될 수도 있는 상징적인 숫자다.

<베드로후서 3: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욥기 10:5>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 역사도 과정이 필요하다. 신앙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기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회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힘들고 오래 걸리듯이, 하나님은 타락된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대마다 사람을 보내시며 오랫동안 역사해 오셨다.

+ 반복되지만 차원을 높여가는 섭리역사

<전도서 1: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찌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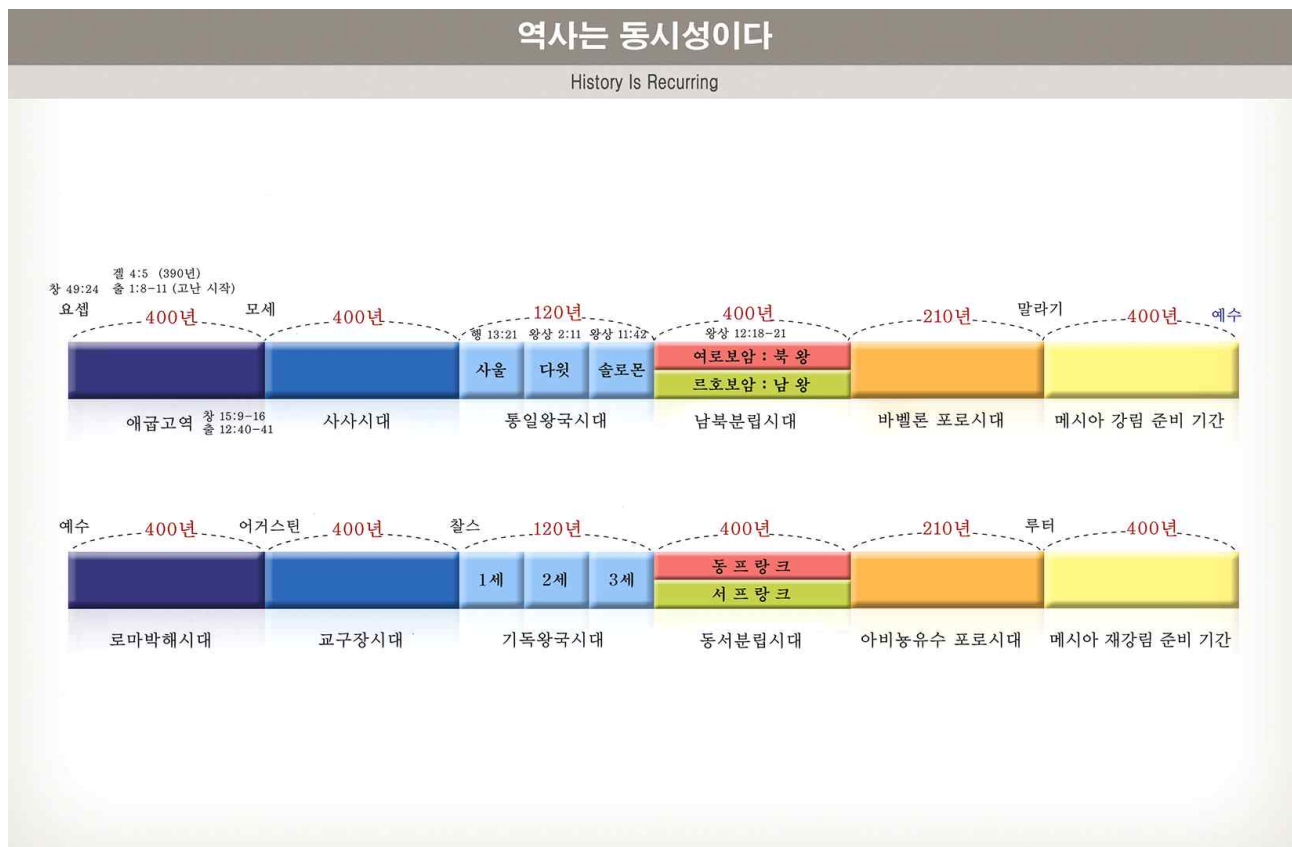
<전도서 3:15>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못한 일 즉, 아담 때 못 이룬 역사를 이루시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진행될 때 기본은 같지만, 차원을 높여서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즉, 역사는 반복되지만, 차원을 높여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다시 진행되는 역사에서는 첫 번째 자세와 실력으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더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셔도 사람의 노력, 즉 책임분담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 중심인물을 통한 동시성적 섭리역사

하나님은 시대마다 항상 땅에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셨다. 중심인물을 통해서 복직의 역사, 사람의 가치성을 회복하는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다.



아담 이후 약 1600년 만에 노아가 나타나서 홍수심판을 통해 새 역사의 발판을 세우려 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브라함(요셉)이후 약 16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났고, 약 400년이 지난 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 때를 따라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 루터 이후 400년

구약 4000년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후에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와 같이 신약 2000년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인 루터 선지자 이후 400년 후에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1546년에 죽었다. 신약 마지막 선지자 루터가 죽은 지 400년 후인 1945년에 선생님은 태어나셨다.

+ 성약역사의 시작, 알파절 (6월 1일)

예수님은 선생님에게 1978년까지 21년 동안 시대 성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은 배운 말씀들을 그림과 도표로 제작하여 복음 전할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월명동 집에서 서울로 떠났다. 그날이 1978년 5월 23일이었다. 서울로 이동하다가 천안 배방산에 들어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5월 31일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 역사를 시작하는 6월 1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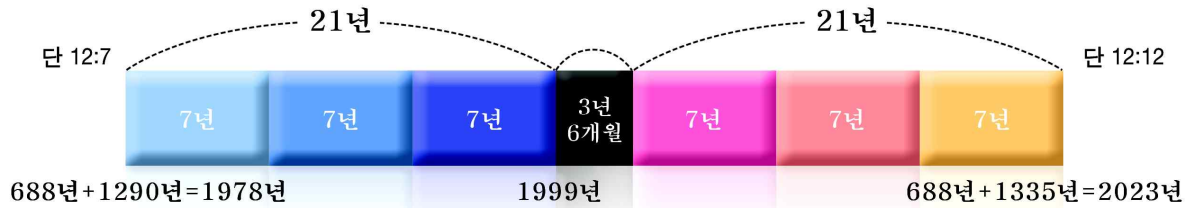
+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성경에 예정된 때를 따라 이때부터 선생님은 예수님에게 배운 말씀을 만나는 자들에게 전해 주고 기도도 해 주고 각종 병도 고쳐 주며, 사람들을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나오게 해 주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마다 은혜 받고 좋아하며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사람들로 섭리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역사

Our History

단 12:7 688년+1260년=1948년 5월 14일 민족 해방



+ 우리의 역사

이렇게 1978년부터 시작된 우리의 역사는 1999년까지 1차 7년, 2차 7년, 3차 7년의 21년 동안 역사를 펼쳐왔다. 성경에 21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21일은 3단계 완성 법칙을 따라 세 이레로 나눌 수 있다. (단 10:2, 단 10:13) 1일을 1년으로 환산(민 14:34)하면 21년이다. 그리고 역사는 동시성이기에 중심자의 노정을 따라가는 것이다.

섭리사는 1차 전반전 21년 역사를 마치고, 3년 6개월 동안 무덤 기간을 거쳤으며, 무덤기간을 지나 2023년까지 1차 7년, 2차 7년, 3차 7년의 후반전 21년 역사를 펼쳐왔다. 합하여 45년 약 반세기 동안 역사를 펼친 것이다.

+ 복이 있는 사람

<다니엘 12:12> 기다려서 일천 삼백 삼십 오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688년에 1335년을 더하면 2023년이 된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다. 1978년부터 2023년 이때까지 섭리사는 45년 동안 예수님의 영적 재림 역사를 펼쳐 왔다.

+ 끝까지 이르며 하라

“이른다”는 것은 <끝까지 남은 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선생님과 함께 뜻을 이루어 온 자>, <2023년 끝까지 이르는 것을 이룬 자>다. 섭리사는 지난 45년 동안 이루며 해 왔고, 특히 2023년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거짓과 음모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왔다. 환난을 이겨온 것도 이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날을 위해 은밀히 역사하시며 복음 전하시며 큰 뜻을 이루어 왔다. 기도하며 뛰고 달리며 끝까지 이룬 자들은 이 시대 복 있는 자들이다.

+ 해방의 해! 2023년!

2023년은 <환난의 해>, 「해방의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다. 그리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과 그의 몸 된 자를 확실하게 깨닫고 새롭게 하는 해다. 섭리사와 민족, 세계 모두 다시 시작하는 해이기에 많은 환난과 고통이 온다. 고통을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어려운 환난을 이기는 해다.

○ 때를 따라 행하라

+ 때를 따라 행하는 자가 천운을 타고 성공한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때에 따라 축복하시며, 때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행하게 하신다. 고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하는 자는 쉽게 하고, 하는 대로 잘되고, 축복을 받고, 성삼위와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같이 살게 된다. 하지만, 천운을 탔어도 때에 맞춰 행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실패한다. 때의 하나님이시니, 때에 따라 행하는 자가 천운을 타고 성공한다.

+ 선생님이 살아계시니 최고의 때이다.

삼위와 예수님의 몸이 되어 행하시는 선생님이 기도해 주고 서로 통하면서 함께 해 주는 때와 함께 해 주지 못하는 때는 완전히 다르다. 때가 지나 떠나가면,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혼자서 해야 된다.

+ 부활의 때에는 부활의 새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를 만든 자라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기 삶의 터전에서 삼위께 영광 돌리며 사랑과 휴거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 부활의 때에는 부활의 새 삶을 살아야 한다. 부활의 역사는 영의 역사이니, 너희 앞에 영이신 주의 생각대로 살아라.